



## 목 차

### ■ 건설관련 소식 ..... 1

-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 아름다운 자전거길 20선 선정 자전거 라이딩 참석
- 경남도·경남도의회, 내년 국고예산 확보 위해 발벗고 나서
- 경남도, 대선공약 4대분야 24개 과제 제안
- 마산로봇랜드, 토목공사 조건부 계약은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
-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 마창대교 영업소 고객쉼터 완공

### ■ 지식정보 ..... 7

- 내년 이후, 대형공사 발주물량 늘어난다.
- 설계용역업체 선정방법, 신뢰는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

- '12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6% 상승
- 혁신도시, 색채선정 마무리 되었다.
- 지명의 절차 및 체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명법」 제정
- 중고차 구매시 침수여부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글로벌 대한민국, 지도로 표현해 보세요”

### ■ 칼럼 (한국국제대학교 김진관교수) ..... 13 - 무너져 가는 건설업계 어떻게 살릴것인가?

### ■ 신기술 정보 ..... 16

### ■ 건설기술심의 현황 ..... 17

### ■ 계약심사 현황 ..... 17

### ■ 기술인 나눔 정보 ..... 18



#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 아름다운 자전거길 20선 선정 자전거 라이딩 참석

- 아름다운 자전거길 경남 4곳 선정



〈아름다운 자전거길 선정 기념식에 참석한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국토종주 자전거길 20선 선정기념으로 의령 박진고개에서 선정기념 표지판을 설치하고 합천창녕보까지 자전거 동호회원 50여명과 자전거 라이딩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직접 체험한 완주자들의 추천을 받아 국내 명품 자전거길 20선을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경상남도 구간은 산악자전거 동호인에 적합하며, 자전거길이 경유하는 무심사에 들러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창녕 무심사 길, 정상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낙동강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의령 박진고개 길, 원시적인 자연과 녹음을 즐기고 흠길을 맨발로 밟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창녕 개비리 임도길, 강 위에 설치된 데크(deck)형 교량을 통해 마치 물위를 달리는 듯한 환상적인 기분을 맛볼 수 있는 양산 황산베랑 길 등 4곳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자전거길은 주변 관광지와 수려한 낙동강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낙동강 자전거길의 경우 이미 그 경제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종주길 쉼터마다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장터와 카페가 생기는가 하며, 종주길 주변의 맛집은 이전보다 매출이 상승하여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또한 종주길 쉼터 요소요소마다 70년대를 생각나게 하는 아이스크림과 찰옥수수 등을 판매하는 특색 있는 노점상도 등장하고 있어 힘들게 달려온 라이딩의 피로를 풀기에 충분하다.

송병권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장은 "전국을 연결한 자전거길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 순찰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오는 8월17일 자전거 전문가를 초청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도내 담당공무원과 동호회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군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길과 연계 방안을 찾고 자전거 대여점, 수리점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경상남도는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자전거길, 연인과 즐길 수 있는 자전거길, 전문 동호회원 들이 즐길 수 있는 MTB 길 등을 개발하고, 도내의 관광지를 연결하여 계절별로 가볼만한 자전거길 등 테마가 있는 자전거길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개비리길 구간 - 창녕군 남지읍>

◎ 행정안전부 선정한 아름다운 국토  
종주 자전거길(경상남도 4개소)



<무심사 구간 - 창녕군 이방면>



<항산베랑길 - 양산시 문곡읍>

▶ 자료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055)211-4345



<박진고개 구간 - 의령군 지정면>

## 경남도·경남도의회, 내년 국고예산 확보 위해 함께 발벗고 나서

### - '2013년도 국고예산 확보 추진단' 구성

경남도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로 내년도 재정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와 공동으로 국고예산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고, 2013년도 국고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나서는 것은 전국 최초이며, 김오영 경상남도의회의장이 지난 7월 20일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가 국고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여 구성된 것이다.

추진단은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과 김오영 도의회의장이 공동 단장으로, 부단장은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이 맡았으며, 의회팀, 총괄팀 등 7개팀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오영 도의회의장은 오는 8월 17일(금) 예정되어 있는 도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시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별로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배부하는 등 경남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사업 들에 대한 국고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9월에서 10월 중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사업 중 중앙부처 미반영 또는 일부 미 반영된 사업 중 추가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업으로는 ▲ 거제 ~ 마산간 국도 5호선 건설 444억 원 ▲ 남해고속국도(냉정 ~ 부산) 확장 1,176억 원 ▲ 김해 ~ 부산외곽 순환고속국도 건설 770억 원 ▲ 부산 ~ 김해경전철 건설 4,681억 원 ▲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602억 원 ▲ 88올림픽 고속국도 확장 1,655억 원, 하수관거 확충 1,338억 원 등이며,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8월 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국비예산 확보와 도정현안을 설명한데 이어 3일에는 국회에서 조현룡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을 방문하여 국비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국회, 출향공무원 등을 방문할 때 도의회와 협력하여 2013년도 국고예산 사업 중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비는 삭감되지 않게 하고, 일부 및 미 반영된 사업은 추가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예산담당관실 재정지원담당  
(055)211-2373

## 경남도, 대선공약 4대분야 24개 과제 제안

### - 경남의 발전전략, 주요 정당별 대선 후보 전달

경남도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와 정당에 제시할 대선공약 건의 과제로 미래 성장동력 기반확충 등 4대 분야에 24개 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도의 경남의 발전전략 중 대선후보에게 제안하여 공약화할 필요가 있는 사안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총 23조 1,873억원이 소요되는 규모이다. 이번 과제는 도, 경남발전연구원은 물론 시·군까지 참여하여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수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분야별로는 ▲미래 성장동력 기반확충을 위하여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7개 과제에 2조 2,585억원,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동남권(남부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 등 8개 과제에 18조 2,834억원, ▲친환경 청정경남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 등 4개 과제에 7,704억원, ▲건강한 휴양경남 조성을 위하여 문화와 휴양의 테마경남 등 5개 과제에 1조 8,750억원 등이다. 경남도는 대선공약 반영대상 주요현안에 대하여 도내 주요정당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정당별 대선후보에게도 건의하여 최대한 대선공약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타 시도에서 대선공약 건의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사이에 경남도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해결과 장기적인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자료를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미리 제공한 것은 발 빠른 대응이라는 평가다.

특히, 8.17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지역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도 자료를 전달하여 후보별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는 건의 이후에도 주요현안과 관련된 건의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대선 전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자료 :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055)211-2313

## 마산로봇랜드, 토목공사 조건부 계약은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

### - PF대출약정 징구 연장 결정은 적법한 합리적 결정

경남도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공공부문 토목공사 조건부 도급계약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대하여 법률적 하자가 없는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적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시민단체에서 950억원 PF대출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고, 만약 연장 기한내 450억원에 대한 PF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도의 조건부 계약체결 방침은 대형국책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PF 기회부여와, 법률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지역내 21,600여명의 고용창출, 1조 6,000여 억원의 생산과 급효과, 소득과급 3,300억원 효과, 부가가치창출 6,900억원 효과, 이로 인한 지역산업 육성과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뒷받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도의 조건부 계약체결 방침이 있기 까지 민간사업자는 3건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특히 투자의향기업인 S사의 PF대출약정 책임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울트라로봇랜드(주)의 주주총회 의결로 자금조달 가능성이 제시된 상태이다.

아울러 도의 이번 조건부 계약체결 결정은 2009년 12월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시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고 이를 통해 경남의 기계산업을 한단계 도약시켜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해 11월에 조성실행계획을 승인받고, 같은해 12월에 기공식을 하여 국비 313억원을 확보한 후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로봇랜드 진입도로인 마산 ~거제 국도5호선 조기 개통의 당위성 확보와 내년에 정부에서 결정할 4,200억원 규모의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경남 유치에 마산로봇랜드 착공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8월 7일까지 계약체결을 통보했으며,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사업장 부지내 수목정리, 전주정리, 경계측량 등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공사시행은 우기가 끝나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경남 마산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반동리 일원 1,259,890㎡의 부지에 7,000억원(국비 560, 지방비 2,100 민자 4,340)이 투입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조성되는 국책사업으로, 함께 선정된 인천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경남은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경남의 국책사업이다.



〈마산로봇랜드 조성 조감도〉

▶ 자료 : 균형발전과 로봇랜드담당  
(055)211-2642

##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 올해 752억원 투입, 39개지구 47km 정비

경남도에서는 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 257개 지구, 790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조 169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11년까지 174개 지구 459.1km가 정비 완료되었으며, 올해에는 752억 원을 투입하여 39개 지구 47km를 정비 중에 있다.

2012년 사업 39개 지구 중 31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사업 8개 지구는 24억 원을 들여 하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어, 오는 10월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중인 31개 지구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류부, 수충부 등 재해 취약지점은 상반기에 정비를 마무리하여 수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사업이 공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국비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이며 홍수방어능력제고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자료 : 생태이전과 하천시설담당  
(055)211-3933

## 마창대교 영업소 고객쉼터 완공

- 화장실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마창대교 영업소 고객쉼터 완공 전경〉

경상남도는 (주)마창대교에서 마창대교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화장실 및 주차장 등 고객쉼터를 4월에 건물 증축공사에 들어가 8월초 완공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원도심을 통과하는 10.47km(접속도로 구간 포함)의 마창대교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창대교 영업소 옆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단층 건물을 증축하여 화장실을 포함한 고객쉼터를 조성하였다.

증축건물에 들어서는 고객편의 시설로는 1층 화장실, 3층 휴식과 전망이 가능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마창대교 모형이 전시되며, 고객 전용 주차장이 10면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고객쉼터 주차장을 완공함으로써 영업소 방문차량과 요금소 통과 후 일시 정차 차량들이 영업소 앞 갓길 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회차로 이용객들과 영업소 방문객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 자료 : 도로과 민자지원담당  
(055)211-4684



## 내년 이후, 대형공사 발주물량 늘어난다.

- 2013년 발주물량, 금년보다 180% 증가 예상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입찰방법 심의\*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추할 때, 내년도 300억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물량이 올해 대비 약 180% 늘어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 입찰방법 심의제도

- 추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등은 건설기술심의회(중앙위, 지방위, 특별위)에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 입찰방식을 결정하는 제도



### < '09~'12년 입찰방법 심의 현황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발주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물량이 작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그동안 침체를 보였던 공공 건설시장이 내년 이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방식별로 보면 턴키 및 기술제안 공사는 전년 대비 173%(22건), 최저가 공사는

전년 대비 175%(50건) 증가하였으며 발주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국방부 제외)이 전년 대비 277% (78건), 국방부는 전년 대비 300%(1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 SOC사업 확대 정책과 주한미군 이전,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자체 사업은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 재정의 악화로 대부분 감소(약 50%)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대형공사의 주요 발주방식으로 자리 잡았던 턴키·대안입찰 보다 기술제안입찰\* 방식이 크게 증가('11년 3건→'12년 23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이는 '지난 07년 도입된 기술력 중심의 기술제안입찰 발주 제도가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건설업계의 계획수주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제안 입찰제도는 사업 초기 입찰부담이 저렴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제안 확보도 가능한 제도라고 밝히며, 현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02)2110-8388

## 설계용역업체 선정방법, 신뢰는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

- PQ기준 심의절차 도입, 소규모 용역 평가 항목 축소 등 설계PQ 개선 추진

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재량,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와 설계용역업자의 입찰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하고 '12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PQ는 용역사의 실적과 보유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의해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문제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7개 발주기관과 연구기관(건기연), 설계협회로 구성된 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2차례 업계간담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설계PQ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건기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앞으로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PQ 기준 제·개정 시 사전에 7일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② 평가의 공정성을 배가하기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내용을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③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5억미만의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건수비중 96.3%, 매출비중 34.1%)하거나 설계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안 검토
- ④ 공생발전을 위해 발주청별로 도급액 상위업체간 공동참여(컨소시엄) 시 감점, 공동도급 업체 수 상한선 제시 금지
- ⑤ 용역 수주 후에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줄이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절대기간(현행 25개월이하 만점)에서 해당용역기간에 대한 상대기간(중복도 100%미만 만점)으로 변경
- ⑥ 장기적으로 코드화된 설계-감리 통합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설계PQ 평가 자동화, 1천여쪽에 달하는 PQ서류 제출없이 온라인 평가 추진

국토해양부는 8.20일(월) 15:00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과천)에서 70~8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02)2110-8402

## '12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6% 상승

- 단가 하락구조 개선 효과 ... 하반기  
단가 총2,253항목 공고

국토해양부는 총 2,253항목에 대한 '12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8월 10일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한 2,253항목 실적공사비의 평균단가는 '12년 상반기 발표한 실적공사비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상승지수 1.9%에는 못 미치나 생산자물가지수 1.6%와 동일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토목은 1.5%, 건축은 1.8%, 기계설비는 1.9% 상승하였다.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4년부터 연 2회(2월, 8월)에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매년 실적공사비 항목을 증가하고 있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04) 285 → ('08) 1,478 → ('10) 1,726 → ('11) 2,053 → ('12상) 2,129 → ('12하) 2,253

\* 공사비 구성

실적공사비(38%)+플랫폼(17%)+자재비·견적(45%)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실적공사비를 발표하면서 실적공사비 수준이 그 단가에 포함된 재료의 가격보다 낮거나, 가격변동폭이 큰 재료비를 포함한 76항목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에서 재료비를 분리하였다. 이는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공사비가 이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12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02)2110-8395

## 혁신도시, 색채선정 마무리 되었다

- 각 도시별 “혁신도시 색채선정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국토해양부는 8월 20일 강원도를 끝으로 9개 혁신도시의 건축물 색채선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각 혁신도시의 색채선정은「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혁신도시 색채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 지역특성과 주변조화가 중시되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한「혁신도시 색채선정지침」('12. 4. 5)은 색채 적용대상은 혁신도시내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이고, 색채선정 기준은 혁신도시별 특성과 색채계획 방향에 따라, 총 30~40개의 주조, 보조, 지붕, 강조색을 제시하여 그 범주내의 색채를 자율적으로 선정,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	경남	대구	경북	울산
색채 계획 방향	부드러운 변화감·친근함	다양성·새로움	물과 교통의 신감천	경관중심 친근함·신선함
색채 범주				

색채는 중앙과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색채선정자문위원회'(15인 내외)에서 선정하며, 건축 인·허가, 사용검사 등 단계별로 색채가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색채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혁신도시별로 실시한 '색채선정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정부의 색채계획 방향에 공감하고 정부가 제시한 색채표를 적용하되, 일부 도시는 건축물의 조화로운 배색과 지역특성을 강조하는 밝은 계열의 무채색을 추가하거나 지붕·강조색 일부를 보완하였으며, 혁신도시 용지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범위로 보고 색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제 모든 혁신도시의 색채선정이 마무리되어, 각 혁신도시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와 같은 외국의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각 혁신도시가 자기만의 개성 있는 색깔을 갖게 됨으로써 도시전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어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새로이 조성되는 혁신도시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되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031)476-8931

## 지명의 절차 및 체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명법」 제정

### - 「지명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8.20일부터 입법예고(8.20 ~ 10.2) 했다.

금번 추진하는 「지명법」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에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국토에 대한 보존 및 국제협력 지원

○지명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여 지명 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그 동안은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 하였는데 금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지명법」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031)210-2692

## 중고차 구매시 침수여부 꼼꼼히 확인하세요!!!

- 국토부, 침수사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국토해양부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차량으로 거래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하여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현행과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 등 침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서류를 확인하는 한편, 차실내 침수 잔여물 및 차량부식 여부 등 차량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704

## “ 글로벌 대한민국, 지도로 표현해 보세요 ”

### - '제7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지도 그리기 대회가 개최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8월 27일부터 '제7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특유의 감성이 표현된 창의적인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전 6회까지는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작 지도를 공모했으나, 이번에는 글로벌 시대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번영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주제를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확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번영',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동북아의 문화중심 대한민국', '지구촌 속의 한 가족, 대한민국' 등의 컨셉을 제시하였다.

10월 10일 국토부가 서울 COEX에서 개최하는 '2012 디지털 국토 엑스포 (SMART Geospatial Expo 2012)'에서 입상작품 시상식(10.10, 15시) 및 전시회가 개최되어 관람자들에게 전시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임주빈 원장은 "이번 지도 그리기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세계속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런 꿈과 희망이 미래로 연결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7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수원시 영통구)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품은 지도 및 미술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5일 입상작을 발표(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http://www.ngii.go.kr))하고, 대상(1명, 국토해양부장관상), 우수학교상\*(1개교, 국토해양부장관상), 최우수상(5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 우수상(10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 장려상(40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이 수여된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031)210-2786



## 무너져 가는 건설업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 ● 한국국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김진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최근 들어 건설업계의 불황은 그 정도가 심하다 못하여 건설경기의 몰락이라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건설업체의 실태를 살펴보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던 5~60년대 우리나라의 일반 가정을 연상케 하고 있다. 그 때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집집마다 입은 많고 먹을 것은 적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든 시기였다.

게다가 식사 때만 되면 꼭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 면 서기나 구장, 반장들이 꼭 식사 때를 맞추어서 서류를 전달하러 오던지 도장을 받으러 온다. 내가 굶어도 손님은 굶겨서 돌려보내지 않는 인심이다 보니 어렵지만 없는 양식에 손님 밥 까지 챙겨야 하던 시절 이었다.

이러한 시절에 끼니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먹을 것을 많이 구해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형편이라면 가족 수를 줄여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가족의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는 외부 손님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어려운 건설경기 부양 방안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이 공사 물량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공사 물량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건설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어린 아이처럼 배고프다고 부모에게 밥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감을 만들어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특성화 시켜야 한다. 특성화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트렌드이다.

대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건축물의 용도(공장, 원룸, 병원 등 등)에 따른 각 분야에서 자기 회사만의 노하우를 쌓아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타 업체보다 월등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건설업체 수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일반건설업체 수를 보면 건축·토목 분야에서만 약12,000개 사이다.

우리나라 건설물량에 비추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건설업체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화만 두고 현재의 불합리한 도급제도를 이용하여 행운을 바라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가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들은 직원들을 고용하지도 않고 자격증을 대여하여 운 좋게 공사를 수주하면 다시 재도급을 주면서 일정부분 마진을 챙기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렇게 자격 미달인 업체들을 퇴출시키곤 있지만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정당하게 일하는 업체들은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세 번째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상으로 주택은 661㎡, 일반 건물은 495㎡가 넘지 않으면 건설면허가 없어도 건축공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소규모 공사에서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가격 경쟁에 밀려 수주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규모 공사는 건설면허가 없어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이 공사 품질의 문제이다. 공사 품질문제로 일어난 단적인 사건이 최근 전주시 중화산동 원룸주택에서 발생한 황산으로 하수구를 뚫으려다 아래층에서 잠자는 주민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일이다. 윗집 화장실 배관을 아랫집 침실 천정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건축을 배운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다 보니 하자가 많아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소형 건축물이다.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여도 건설업체와 달리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안전사고의 문제이다.

안전사고 발생율이 가장 많은 건물 역시 소형 건축물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3억~20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7035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건설업 전체 재해자(2만2782명) 중 31%를 차지했다고 한다.

건설재해자 10명중 3명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도 합리적인 보상이나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건설면허 없이 공사할 수 있는 규모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일감을 늘려 주어야 한다.

물론 지금의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풀어내기는 한두 가지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다. 지금은 건설업계 종사자 모두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지에스건설(주)
	중앙산업(주)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69호
- 기술분야 : 토목 시공 (상하수도)
- 내용요약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관내면 표면처리를 위한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기술 및 관내면 연속 시공이 가능한 자주식 대형관 라이닝 장치를 이용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 공법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신기술은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 1,800mm~2,800mm)의 내부에 임펠러 블라스팅 장치를 투입하여 360도 회전하며 컷와이어를 투사해 녹이나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고, 도장을 위한 조도를 형성하며, 분사노즐의 경사각도 및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장치를 이용하여 노즐을 강관의 내면에 근접시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작업을 함으로써 노후된 수도관을 갱생하는 공법이다.

## 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동양주공(주)
	동양철관(주)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64호
- 기술분야 : 토목 시공 (상하수도)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관 내부에 배관정형장치를 설치하여 강관 이음부의 진원 및 Root gap을 조정하고 Backing Plate를 용접위치에 밀착시켜 단차를 조정한 후, 용접조건이 프로그램된 무레일의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외부에서 외면 및 내면 비드를 형성시키는 현장 맞대기 자동용접 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강관의 내부에서 Backing plate가 장착된 배관정형장치로 강관을 견인하여 진원과 단차 및 Root gap을 조정하고, 강관의 외부에서 무레일의 자동용접장치로 외면 및 내면 비드를 형성시키는 맞대기 자동용접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연왕

### 2012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결과

- 건 명 : 마산의료원 신축공사 외 2건
- 심의일자 : 2012. 08. 30 (목)
- 요 청 자 : 경남개발공사, 거제시, 밀양시

의안번호	요청사항	사업명 (발주청)	사업개요	심의결과
2012-04-01	입찰안내서 (일괄입찰)	마산의료원 신축공사 (경남개발공사)	·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장군동 · 사업내용 : 연면적 20,448㎡(지상6, 지하1) 300병상 · 사업비 : 637억원(공사비 440, 보상비 등 197) · 사업기간 : 2013 ~ 2016년(4년간)	조건부 의결
2012-04-02	입찰방법 (기타공사)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거제시)	· 위치 : 거제시 상동동 ~ 거제면 오수리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3.94km, B=20m · 사업비 : 844억원(공사비 749, 보상비 등 95) · 사업기간 : 2014 ~ 2018년(5년간)	기타공사
2012-04-03	실시설계 (적정성)	상남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밀양시)	· 위치 :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 사업내용 : 하수관거 L=15km, 배수설비 852가구 · 사업비 : 127억원(공사비 124, 보상비 등 3) · 사업기간 : 2013 ~ 2017년(5년간)	조건부 채택

▶회계과 (O55)211-3554



##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간	분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2년 8월말 현재 (누계)	계	527	589,069	549,200	39,869		
	공사	토목	222	366,568	338,513	28,055	
		건축	59	90,256	85,130	5,126	
		기타	44	69,799	65,879	3,920	
	용역	89	53,881	51,503	2,378		
	물품	113	8,565	8,175	390		

▶회계과 (O55)211-3543



**기술사 시험 일정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96회	2012.01.13 - 2012.01.19	2012.02.12	2012.03.23	2012.03.26 - 2012.04.04	2012.03.26 - 2012.03.29	2012.04.28 - 2012.05.10	2012.05.18
2012년/ 제97회	2012.04.20 - 2012.04.26	2012.05.13	2012.06.29	2012.07.02 - 2012.07.05	2012.07.02 - 2012.07.05	2012.07.28 - 2012.08.09	2012.08.17
2012년/ 제98회	2012.07.20 - 2012.07.26	2012.08.12	2012.09.21	2012.09.24 - 2012.09.27	2012.09.24 - 2012.09.27	2012.10.27 - 2012.11.08	2012.11.16

**기사 / 산업기사 필기시험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1회	2012.02.03 - 2012.02.09	2012.03.04	2012.03.16	2012.03.19 - 2012.03.28	2012.03.19 - 2012.03.22	2012.04.21 - 2012.05.04	2012.06.01
2012년/ 제2회	2012.04.27 - 2012.05.03	2012.05.20	2012.06.08	2012.06.11 - 2012.06.14	2012.06.11 - 2012.06.14	2012.07.07 - 2012.07.20	2012.08.17
2012년/ 제3회	2012.08.03 - 2012.08.09	2012.08.26	2012.09.07	2012.09.10 - 2012.09.13	2012.09.10 - 2012.09.13	2012.10.13 - 2012.10.26	2012.11.23
2012년/ 제4회	2012.08.24 - 2012.08.30	2012.09.15	2012.10.05	2012.10.08 - 2012.10.11	2012.10.08 - 2012.10.11	2012.11.03 - 2012.11.16	2012.12.14

## 2012 대한민국 신기술대전

1. 전시기간 : 2012.09.19.(수) - 09.22(토)
2. 전시장소 : 한국국제전시장(KINTEX 1홀-5홀)
3. 주최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4. 주관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CM협회, 한국감리협회, 한국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설융합IT학회, 한국경제신문, 한국건설정책연구원,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5. 후원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6. 행사규모 : 50,000㎡ 600개사 2,200부스  
(국내:500개사, 국외:100개사)

◎ "대한민국 신기술대전", "한국국제건설대전",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 "한국국제건설기계전" 등 건설분야 정부통합전시회  
(기존에는 개별 행사로 개최되었으나, '10년부터 통합 개최, 금년 2회 행사로 격년)

※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ctep.re.kr](http://www.kictep.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3552~6

FAX : (055)211-3519

e-mail : moonsoo70@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

## 2012 IWA 세계물회의

1. 일시 : 2012. 9. 16(일) ~ 9. 21(금)
  2. 장소 : 부산BEXCO, 누리마루APEC하우스 등
  3. 행사내용
    - 구두 및 포스터 발표
    - 워크샵 및 산업포럼
    - 전시회
    - IWA 물산업 혁신상 시상 등
- ※ 상세한 사항은 2012 IWA 세계물회의 홈페이지(<http://iwa2012busan.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